

투데이 칼럼

국방력 강화에 몰두하는 북한

한반도 정세는 여전히 갈등과 대치, 긴장 속에 놓여 있다. 미사일은 아니지만 북한은 해상 완충구역 안으로 포사격 도발을 이어갔다. 우리는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다시 주적으로 규정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최신 스텔스 폭격기를 공개했다. 일본은 북한 위협을 명분으로 방위력 증강에 나섰다. 북한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사격이 금지된 해상 완충구역 안으로 이틀 연속 포를 쏘았다. 한미의 포병훈련에 대응한 거라는 억지 주장을 또다시 썼다. 이렇게 남북 갈등과 긴장이 여전한 가운데 다음 달 발간될 우리 국방백서에 북한을 다시 주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그렇더라도 남북대화과 협력을 부정하는 건 아니라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북한의 포격 도발은 동·서해 해상완충구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연이름 이어졌다. 5일엔 동·서해상으로 포탄 130여 발을, 하루 뒤엔 강원도 고성군과 금강군 일대에서 방사포 100여 발을 쏘았다. 그러면서 한미훈련에 대한 대응 사격이었다고 강변했다. 한미가 강원도 철원 일대에서 다연장로켓포를 동원해 실시한 사격훈련을 광궤거리로 내세운 것이다. 북한은 기존의 낡은 무기가 됐든 신형 무기가 됐든 지속적인 도발을 통해



정복규
논설위원

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유도하고 남북관계에 있어서 주도권을 잡는데 주력하고 있다. 북한 주적 표현은 1994년, 북한의 '서울 불바다' 위협을 계기로 1995년 국방백서부터 쓰였다. 이후 화해 분위기에 따라 '직접적 군사 위협' 등으로 바뀌었고,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적'이란 표현이 다시 등장했다. 문재인 정부에선 남북 정상회담과 9·19 군사 합의 등에 맞춰 '북한' 대신 '세력'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윤석열 정부 입장에선 그동안에 남북 관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표현을 썼다. 이 대등하지 못한 관계를 대등하게 만들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북한의 도발이 이어진다면 우리의 적은 북한 정권, 북한군이라는 입장이 계속해서 확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방공망을 높고 은밀하게 핵 공격을 할 수 있는 차세대 스텔스 폭격기 B-21 레이더를 공개했다. 미국이 신형 폭격기를 내놓은 것은 33년 만으로, 중국, 러시아, 북한 등에 대한 핵 억지력이 강화될 것이라 분석이다. 북한은 유례를 찾을 수 없게, 올해 연간 기준으로 가장 많은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며 우리 안보를 위협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막대한 돈을 쏟아 붓는 동안 을 식량난은 어느 해보다 심각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실패로 북한이 경제 집중노선을 버리고 국방력 강화에 몰두한 데다 자연재해까지 이어진 탓이 크다. 그렇지만 북한은 내년에도 역시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은 2022년

예단 총 39회로, 지난 38년 가운데 연간 최다를 기록했다. 한국국방연구원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한 번 쏘는 데 2,000만에서 3,000만 달러 정도 드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올해 탄도미사일 발사 비용은 5억 6,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400억 원에 달한다. 북한은 인건비가 한계 비용인 채로인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의 미사일 발사 비용과는 차이가 있다. 그래도 63번의 결친 단거리 중거리 또는 ICBM 발사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올해 1조 원 이상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식량안보 예산을 투입하기 보단 미사일 안보에 식량을 투입함으로써 먹는 문제 해결에 여전히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북한의 도발이 잦아질수록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변수도 함께 늘고 있다. 일본이 최근 군사력 강화에 나선 것도 그 변수이다. 일본은 내년 방위비를 올해보다 크게 늘리고 군사 전략도 방위에서 반격 능력 중심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북한 위협 때문이란 명분을 내세우지만 결국 중국 견제가 핵심이란 분석이다. 미중 대결 구도를 더 가속화시킬 거란 전망이 나온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바이든 “아프리카 국가에 72조원 투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아프리카 정상회담 폐회 세션에서 식량 안보 및 식량 시스템 회복력 증진에 관해 연설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리카 국가에 72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2023 미스 아메리카 왕관 쓰는 그레이스 스탠키



지난 15일(현지시간) 미 코네티컷주 연케스터의 모건헌 선 아레나에서 열린 2023 미스 아메리카 선발대회에서 영예의 미스 아메리카에 선발된 미스 위스콘신 그레이스 스탠키(Grace Stanke)가 2022 미스 아메리카 엘마 브로일스로부터 왕관을 받고 있다.

사설

노인회 경로당에 스카프 전달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 경로당광역지원센터는 지난 14일 '효자보청기'와 함께 연합회장실에서 따뜻한 겨울나기 '경로당 어르신 스카프 나눔'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전달식은 전주시 기초푸드뱅크를 통해 효자보청기에서 스카프 100장을 기탁하여 취약 지역 홀몸 어르신께 전달할 예정이다. 이승호 효자보청기 대표는 “어르신들을 위해 준비한 물품이 어느 때보다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사회 공헌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어르신 친화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두봉 전북연합회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꾸준히 기부에 동참해 주시는 효자보청기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어르신들이 감기와 코로나에 재감염되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 경로당광역지원센터(센터장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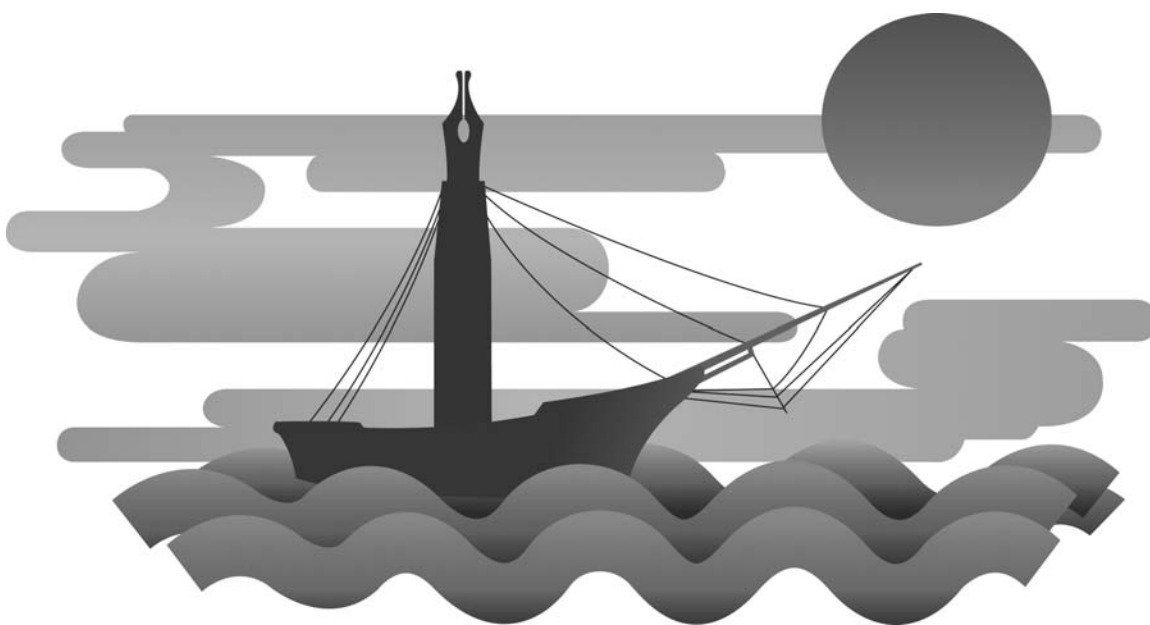
정희)는 지난 2020년 10월 효자보청기와 노인 복지 증진 및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에 따르면 효자보청기는 보청기 무료 지원 사업을 통해 난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 대상으로 보청기 3대를 무료 지원했다. 그리고 2021년부터는 100명에게 보청기를 저렴한 가격에 지원하는 등 상호 협력 관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노인성 난청은 삶의 질 저하 및 우울증, 이명, 치매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난청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난청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당시 업무 협약을 통해 효자보청기와 함께 난청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이 세상과 자유롭게 소통하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했다.

마스크 해제 가능한가

정부가 오는 23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기준을 발표하기로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15일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토론회의 핵심 주제는 현행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언제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해제, 조정할 것인가였다. 방역 전문가들은 현행 실내 마스크 법적 의무를 '자율 착용' 권고 방식으로 완화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로드맵을 짜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일상 복귀의 전제 조건은 대부분 만족했고, 위험 인식 차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 국민의 97% 이상이 기초적 면역을 획득했다. 유행 반복 때마다 유행 규모가 줄어들고 있으며, 지난 재유행 대응 경험으로 의료 대응 능력도 확인됐다. 마스크 착용은 '의무'에서 '권고'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을 제외

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는 단계적 의무 조정 방안이 필요하다.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과정에서 지나치게 복잡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대신 국민이 납득 가능하고 쉽게 준수할 수 있는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은 개인 행위이므로 거리두기 조치처럼 시설 중심의 지침에서 벗어나 개인의 상황이나 행위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실내 마스크 의무를 '자율 착용 권고'로 전환할 경우 개인마다 마스크 착용 여부에 대한 답변이 다양하다. 조정을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의 효용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최근 겨울 재유행이 조금씩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백신 접종과 자연 면역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면역이 감소하는 것이 원인이다. 개량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는데도 접종률은 저조한 수준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